

맛벌이 부부 신창동으로 이사가라

호남통계청 광주 14개 생활권역 분석

보육시설 밀집...아이 맡기기 좋은 동네

황금동은 쇼핑·문화 생활 즐기기 제격

광주에서 맛벌이 부부가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호남지방통계청이 28일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gis.nso.go.kr)의 '이사지역 찾기 시스템'을 통해 '통계로 본 광주시 14개 생활권역 분석'을 한 결과 광주시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보건대 부근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2007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이

9곳에 달했다. 특히 이 일대는 아파트를 비롯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해 있어 특히 20~30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도 꼽혔다.

광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8년 현재 48.0%로 절반에 육박하면서 보육시설을 비롯해 교육 시설이 많은 곳이 젊은 세대들에게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창동에 이어 보육시설이 많은 곳

으로는 북구 양산동 57~59번지 일대로 양지초등학교와 일동초등학교 사이, 광산구 운남동 마지초등학교와 광주세광고 일대로 나타났다.

'학원거리'로 유명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인근에는 학원이 모두 106곳으로 광주에서 학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됐다. 주로 언어·예술 관련 학원들이 많았다. 뒤이어 서구 치평동 운천초교 부근과 광산구 산월동 남부대학 및 보훈병원 사이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시설, 영화관 등을 비롯해 문화공간이 많은 곳으로는 동구 황금동 파레스 호텔 부근으로 2007년 기준 11곳에 달했다.

황금동 일대는 동구 총장로 5가 제일고 인근과 서구 양동시장과 함께 소매점이 많이 밀집해 있어 쇼핑하기 좋은 곳으로도 꼽혔다.

이밖에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부근, 동구 총장로 5가 제일고와 롯데백화점 일대에도 문화공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공원 등 산책할 공간이 많은 지역으로는 북구 지야동 지산초 부근, 북구 금곡동 옛 농촌문화 전시관 일대, 서구 풍암동 광주중과 마재초교 일대로 조사됐다.

또 체육시설이 많아 운동하기 좋은 곳은 서구 치평동 운천초교 일대로 19개의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북구 용봉동 태봉초교 부근, 서구 풍암동 풍암초교 부근 등의 순이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이사지역 찾기'를 이용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통계로 본 광주생활권역

아이 맡기기 좋은 동네	-광산구 신창동 광주보건대 인근
신학하기 좋은 동네	-북구 지야동 지산초교 인근
운동하기 좋은 동네	-서구 치평동 운천초교 인근
공연시설이 많은 동네	-동구 황금동 파레스호텔 인근
학원 보내기 좋은 동네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인근
초·중학교 많은 동네	-광산구 산월동 남부대학 인근
고등학교 많은 동네	-남구 방림동 송의중 인근
대학교 많은 동네	-동구 서석동 조선대 일대
이파티 많은 동네	-서구 금호동 금호중 인근
1995년 이전 주택 많은 동네	-서구 금호동 금호중 인근
1995년 이후 주택 많은 동네	-서구 내림동 한국병원 인근
2005년 이후 주택 많은 동네	-광산구 신창동 생태휴양공원 인근
쇼핑하기 좋은 동네	-동구 황금동 파레스호텔 인근
10대가 많이 사는 동네	-북구 일곡동 서일-일신초교 인근



대형 세단 같은 승차감

기아 2010년형 '모하비' 출시

기아차는 28일 대형 세단의 승차감과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적용한 '2010년형 모하비'를 출시했다.

이 모델은 최고급 대형 세단에 적용되는 '진폭감응형 댐퍼'(ASD)를 적용, 일반 도로주행 시 승차감을 향상시켰고 선회나 험로 주행 때에는 조종 안정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화해 실내 도어핸들, 오디오 및 에어컨 스위치, 자동변속기 레버 버튼 등에 크롬을 입혔다.

또 자동요금 징수시스템(ETCS), 경제운전 안내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등 고급 편의사양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의 내비게이션과 지상파 DMB TV, 블루투스 핸드프리, 오디오 스트리밍, 음성인식 명령제어 등의 기능을 탑재한 '액츄얼 DMB 내비게이션 II'도 선택 사양으로 포함시켰다.

새로 출시된 모하비는 250마력의 V6 3.0 S엔진이 탑재됐으며, 연비는 11.1km/l (다릴 2WD 기준).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NHTSA)가 실시한 충돌테스트에서는 정면 및 측면 충돌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한 바 있다. 가격은 디젤 모델이 3천359만~4천605만원, 가솔린 모델은 3천200만~4천855만원. /김지을기자 dok2000@

디지털사진 인화소재 광주서 양산

수도권 벤처 '디지큐브' 광주공장 준공

수도권 벤처기업인 (주)디지큐브가 28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이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디지털사진 및 ID카드용 인화소재를 개발했으며, 올 2월부터 130억원을 투자해 평동산업단지 내 9천917㎡ 부지에 5천950㎡ 규모의 공장을 지어 생산라인을 갖췄다.

디지털 사진 인화장비와 인화용지, 잉크리본 등 인화소재를 생산하는 (주)디지큐브는 그동안 자가공장 없이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해왔으며,

광주공장 준공으로 디지털 사진 인화에 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세계 3위의 최신 신규 풀 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 업체 대표 김환기씨는 "이번 광주공장 준공으로 그동안 46개국에 수출해온 기술력과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연매출액 600억원과 150명의 고용창출을 바라보는 중견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국내외 바이어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주)디지큐브가 지난 2007년 9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공장이전을 돕기 위해 광주전략산업투자조합을 통해 10억원을 출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주테크노파크 내 기술이전센터를 연계시켜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60억원을 대출받도록 돕는 등 올해 7월까지 모두 8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민선 3기 이후 현재까지 광주지역에 국내의 678개 기업이 2조9천254억원을 실투자했으며, 이로 인해 2만2천417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축산물 싸게 팝니다"

농협전남지역본부가 28일 광주시 상무지구에 개설한 직거래장터에 고객들이 몰렸다. 농협은 상무지구와 동구청 옆 K광장 직거래장터에서 30일까지 전남산 농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20% 싸게 판매한다.

농협전남지역본부가 28일 광주시 상무지구에 개설한 직거래장터에

고객들이 몰렸다. 농협은 상무지구와 동구청 옆 K광장 직거래장터에서 30일까지 전남산 농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20% 싸게 판매한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중소기업 경기 전망 소폭 상승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1천415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의 업황전망감각지수(SBHI)가 9월의 지수(96.0)보다 0.2포인트 오른 96.2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11월(96.7)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달 업황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 유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분석했다.

SBH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조사대상 11개 업종에서 SBHI가 상승했는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80.4→95.8, 15.4P),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108.9→115.0, 6.1P), 자동차부품(100.7→106.5, 5.8P) 등의 상승폭이 컸다.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한 업종은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115.0), 자동차부품(106.5),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102.3) 등 5개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광주서 만든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출시 한달만에 4,200대 팔렸다

삼성전자는 광주에서 생산되는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신제품인 세찬 화이트(ZRM316 NWAQ)가 출시 한 달 만에 4천200대가 판매되면서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작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판매량"이라며 "150만~200만 원 대의 프리미엄 제품임에도 스탠드형 수요가 늘면서 매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올해 지펠로 김치냉장고 브랜드를 교체하고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 삼성전자는 간벌 독립냉각, 롤링커버 등 김치 맛을 지켜주는 기술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가을 김장철을 맞아 김치냉장고를 사면 삼성



기프트 카드를 비롯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 지펠 홈페이지(www.zipe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국제보청기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듣습니다. 2. 안 보웁니다. 3. 가격이 맘에 듭니다.

www.sjir.com

잘 들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